

취미 넘어 생활이 된

그들만의 '책읽기'

(세계인의 책 읽는 문화)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비슷한 거짓말을 한다. “취미가 뭐냐?”는 상대의 질문에 “음악감상이요, 독서요”라고 말해버리는 습관이다. 취미라 함은 마음에 느껴 일어나는 멋이나 정취를 말하는데 실제로 독서를 취미로 삼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짐작인즉 옆에 여섯은 도서관 의자에 앉아 정색하고 책을 펼쳐야 그나마 독서다운 독서를 할 것이다.

일본인은 지하철에서 책 많이 읽는 민족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프랑스인들은 휴가 때마다 옷이나 생활용품만큼 많은 책을 준비해 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독서요”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책읽기는 취미를 넘어 생활 일과 중 하나가 돼버린 지 오래다.

● “누구나 평등하게 책을 읽어야 한다”

8년 간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던 소설가 권지에 씨는 “프랑스의 휴가지에서 마냥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여유롭게 누워 책을 읽는 모습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소개한다. 쉬고 즐기러 가는 바캉스에 책을 들고 가는 이유는 책이 곧 ‘생활’ 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은 작년 한 해 국민 1인당 평균 7.5권의 책을 구입했다. 특히 15세부터 19세까지의 젊은 독자들의 책 구입량은 2002년 5퍼센트, 2003년 7퍼센트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 문화에 빠져 있는 젊은 파리지역의 58퍼센트가 문화생활 가운데 독서를 가장 많이 즐긴

다고 응답했다. 세대가 변해도 프랑스인들의 책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증거다.

프랑스인들이 이렇듯 독서를 좋아하고 즐기게 된 이유는 18세기 말 프랑스대혁명, 계몽주의의 영향 등 역사적 사실과 연관이 깊다. 대혁명 이후 공화국은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독서를 장려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프랑스의 그랑카라테르 출판사 대표 티에리 들라페 씨는 “프랑스인에게 책은 곧 자유와 평등을 의미한다”며 프랑스혁명 당시 뿌리박힌 책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깊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평등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자는 논리로 프랑스 사람들은 자국 내에 독서 인프라를 꾸준히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마을에서도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간혹 아주 작은 마을의 경우 도서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도시 자체적으로 국민의 지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한다. ‘리르 에 페르 리르(Lire et faire lire: 읽고 읽게 하자)’라는 독서운동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알렉상드르 자르맹이 지난 1999년 발의한 이 운동은 “책읽기의 즐거움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정년퇴직자의 참여를 호소한다. 이 운동의 주요 활동인사는 3,00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이들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거주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씩 동화책을 읽어준다. “시골 아이들이라 해서 독서를 즐길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평등의 논리가 이 운동을 만든 썬이다.

● “읽어주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책에 관한 한 일본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문고판까지 만들었던 일본인은 출퇴근 전철 안에서도 짬을 내 책을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 프랑스인들이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책읽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면 일본인들은 가정 내 독서교육을 통해 책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케이스다.
대부분의 일

• 프랑스 노천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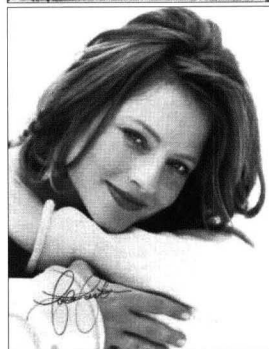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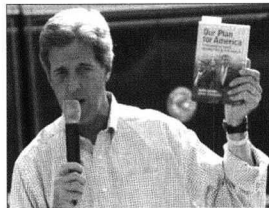
본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일 때부터 독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마이니치신문이 “유아기 때부터 부모가 그림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성장 후 아이의 평균독서량이 많아진다”고 보도한 이후엔 더 열성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부모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이다.

한편 유대민족 역시 일본인과 비슷한 형태의 독서교육으로 독서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유대계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꿀 한 술씩을 떠먹여 주고 아이를 달래가면서 <탈무드>를 읽어주기로 유명하다. 유대인들은 가정 내 독서교육을 철저히 하는 민족 중 하나다. 평소 부모님의 책읽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며 대부분의 부모가 책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할 정도다. 세계적인 권위의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영광을 가정 내 독서교육으로 돌린다면 지나친 억지일까.

● “독서의 즐거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알리자!”

일본인과 유대민족이 가정 내 독서교육으로 독서를 생활화하게 됐다면 미국은 전 사회적으로 독서운동에 적극성을 발휘해 독서문화를 형성한 케이스다. 특히 미국에선 공인들이 국민들 앞에 나서서 책읽기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적극 알린다. 특히 정치인들의 독서 얘기가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대선 수행취재기자의 눈에 비친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의 다양한 취향을 소개하면서 케리가 지독한 독서광임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미국대통령들은 휴가 때 보통 10~15권의 책을 갖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스스로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았다. 휴가 때 짬을 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책 읽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설도 부지런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에선 공인들이 앞장서 책읽기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알린다

이 밖에 디지털 영웅 빌 게이츠,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 등 유명인들 역시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요즘 읽은 책,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한다.

한편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책읽기를 적극 장려한다. 워싱턴 몽고메리 카운티의 23개 도서관에선 연간 책읽기를 장려하는 특별행사가 무려 4,000회나 실시될 정도다. 한때 시카고에선 ‘앵무새 죽이기’란 독서 캠페인도 화제가 됐다. 이 캠페인은 시당국이 앵무새 리본 25,000개를 시민들에

게 나눠주고 리본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즉석 독서토론을 하는 행사.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도서관이며 서점에서 계속 열리고 있으니 미국인들은 책을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 영웅인 빌 게이츠가 “내가 살던 작은 마을의 도서관이 날 만들었다”고 말한 것이 결코 형식적 발언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말 안장 위에서 책을 읽었고, 발명왕 에디슨, 뉴턴 등도 열혈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영상문화를 주도하는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도 독서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이타닉을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 다이하드의 레니 할렌 감독을 비롯해 영화 배우 조디 포스터 등은 웬만한 인문학자 못지않게 책을 읽고 소장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평등한 지식공유에 대한 욕구, 가정 내 독서교육, 사회·국가적 장려 등 선진국들이 책을 보다 가까이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책 안 읽는다고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책읽는 문화가 어떤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글 | 김정연 기자

• 일본 지하철

